

46 濟寧客談

친선공담

친선공담은 丁若歲(정지성)의 문집 즉 文
 岩集(문암집)에서 유래 한다 정지성(1718~
 18-1)은 경북 영주 사람으로 고향에서
 벼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독서하는 개성
 의 선학으로 일생을 마치 숨은 선학
 자 였다 그의 유저로는 「文岩集(3권) 1책

목판본) 이 있는데, 비록 작은 책자이기
 는 하나, 우리 선학의 귀중한 유산으로
 역사적 재조명을 받음만 하되
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이르기까지
 그의 선구적 업적이 학계에 ~~적~~ 소개된
 것이 거의 없다
 정지성의 사회개혁 사상은 그의 문집
 에 많게 있는 <濤室叢書(찬선공감)>에
 잘 의탁되어 있다. 찬선공감은 단순
 한 한범본적 개혁 사상이 아니고 조선

왕조 후기 사회 (18^C 말) 의 갖가지 사회문제
 의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두 차
 원에서 매우 구체적인 현실적인 시안
 이 있다

체제는 주로 그 네 ^의 문답식 (問答式)
 으로 매우 참신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
 丁文蔚 (정문암) 의 개혁사상은 사회전반에
 걸친 20여 가지에 달한다. 과거 제도도
 개선부터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사항
 들이 있으며 특히 유학의 주목을

No.

이 있다

10x20

10x20

풍문 것은 그대 고향 嶺南(영주)가 속해
 있는 洛東江(낙동강) 상류 지방의 국토보전
 론이라 할 수 있다

주인이 크게 인식하기를 「... 백성들로 하
 여금 생존할 방도가 없기 예의를 차린
 것을」조차 없게 하는 것은 곧 시내의
 흉터 내리는 모래 때문이다...

우리 嶺南地方(영남지방)은 이 퇴반이
 더욱 심하니 태백산 소백산 조령 주령
 이 남쪽을 둘러 쌓고...

강변(江邊)에는 모래가 날려 쌓여 굽은 여(女) 1척
 (尺)이 돌아지고 명변(名邊)에 또 한자가 돌아
 지면 10년이 못가서 듣지가 모두 백사
 장이 된 터인데... 이것이 영남
 의 제일 큰 환포(換布)이 아니겠는가?
 개(街) (峯)이 물기름 영남의 전포(田圃) 듣사가
 쌓이듯 것을 참으로 그대야 말과 같이
 만약 이를 예방할 방도(方道)를 세운다면 어
 렷게 구상하겠는가?
 주인이 땅 하계를 다스릴 먼저 수원(水源)을

사되어 보고...-의 하면서 해결책을 진술
 한다 그 내용인 즉 자연 (물줄기 타 산줄기 등)
 즉 ^{지리}지리(지리)를 잘 이용하는 방향으로
 의 대책이 ^{안정}보장되고 있다

丁文岩 선생은 이렇듯 오늘날의 관점에서
 말하면 국론 보존론의 일단을 되력하는 것
 이지만 주자학이 지배하던 당대에 이 터
 한 의견을 개진한 데도 많은 동기가 포함되었을
 것이다. 참고로 이 자료는 판자가 잘 아는 대우
 의 장서가인 ^{판자}황성(黃成) (이인래) 선생으로 부터 제공받았다

이 선생은 고장하는 교의 다반여권을 펴냄 대항에 인제 했다